

KPGA 역대 최고령 신인상 '이원준'

35세 16일 나이 신인상 포인트 1위에 올라
톱10 3차례 진입하는 등 안정된 활약 펼쳐

이원준(35·호주)이 2020시즌 '까스텔바작 신인상(명출상)'을 거머쥐며 내년 시즌 다승에 도전한다. 그는 35세 16일의 나이로 신인상 포인트 1위(1,699.00P)에 올라 역대 최고령 신인상의 주인공이 됐다. 이원준은 올해 우승 1회 포함 톱 10에 3차례 진입하는 등 안정된 활약을 펼쳤다. 제네시스 포인트는 6위(2,450.00P), 제네시스 상금순위 9위(2억1683만3072원)에 오르며 투어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한 때 아마추어 세계랭킹 1위에 올랐던 이원준은 지난해 '제62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06년 11월 프로 전향 후 약 13년만에 프로 데뷔 첫 승을 일궈낸 것이다. 이후 KPGA 코리아투어 시드를 획득하며 정규 멤버로 활동했으나 참가한 대회 수(3개)가 시즌 대회 수(15개)의 1/3을 충족하지 못해 2020년부터 '루키' 자격을 갖게 됐고, 올해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 with 타미우스CC'에서 통산 2승째를 거뒀다. 이원준은 "골프 시작 이후 처음 차지하게 된 시즌 타이틀이었던 만큼 기쁘고 뿌듯했다"며 "우승도 이뤄냈지만 사실 올해 목표는 다승이었던 만큼 아쉬움도 조금 남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즌 내내 괴롭혔던 퍼트에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원준은 "퍼트가 생각만큼 따라주지 못했다. 골프에 만약은 없지만 퍼트가 잘 됐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즌을 돌아보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잘 극복했다. 어린 시절 미국과 호주 등에서 겪은 경험이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점차 내가 원하는 플레이를 찾아가고 있다. 사실 그 전에는 욕심만 앞세웠던 적이 많았다"며 "순간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타기 위해 뒤로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가장이 되면서 책임감도 더욱 커졌다. 그는 "2019년 첫 우승 당시에는 딸이 아내의 뱃속에 있었지만 이번 우승 때는 세상 밖에서 우승을 지켜봤다"며 "가장이 된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차분해졌다. 경기 중에 마인드컨트롤도 잘 된다. 어느 순간부터 안정감 있게 플레이한다"고 웃었다. 이원준의 2021시즌 목표는 다승이다. 또한 그린적중률, 평균퍼트수 부문의 수치를 올해보다 높이는 것이다. 그는 "비 시즌동안 쇼트게임 능력



향상을 위해 힘을 쏟겠다.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30대 중반의 나이지만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경주, 양용은 선수를 보면 이 나이 때에도 엄청난 실력을 발휘했다. 물론 하는 수가 될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뉴시스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가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야돌리드의 호세 소리아 경기장에서 열린 2020-21시즌 프리메라리가 15라운드 레알 바야돌리드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팀의 세 번째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메시는 1골 1도움을 기록해 바르셀로나의 3-0 승리를 이끌었고 역대 단일 클럽 644골 신기록을 세웠다.

'펠레 넘은' 메시, 단일 클럽 최다 644골 새역사 신기록

리오넬 메시(33·FC 바르셀로나)가 '축구 황제' 펠레를 넘어 단일 구단 최다 골 신기록을 썼다. 메시는 23일(한국시간) 스페인 바야돌리드의 에스타디오 무니시팔 호세 소리아에서 열린 2020-2021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5라운드 레알 바야돌리드와 경기에서 골을 터뜨렸다. 메시는 팀이 2-0으로 앞선 후반 20분 페드리의 패스를 받아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메시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놓은 644번째 골이다. 이 골로 메시는 단일 클럽 최다골의 주인공이 됐다. 바르셀로나 유스팀을 거쳐 2004년 1군에 데뷔한 메시는 2005년 5월 1일 데뷔골을 넣었다. 17시즌 동안 원클럽맨으로 뛰며 644골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펠레가 1956년부터 1974년까지 브라질의 산투스에서 작성한 643골을 뛰어넘는 기록이다. 한편, 바르셀로나는 3-0 완승을 거뒀다. 뉴시스

국대 에이스 출신 윤석민, 골프 선수로 인생 2막 출발

KPGA 2부투어 대회 참가



윤석민(왼쪽)과 정푸드코리아 대표 박보현(오른쪽) 대표. (사진=정푸드코리아 제공)

야구대표팀 우완 에이스로 활약했던 윤석민(33)이 골프 선수로 새 출발한다. 정푸드코리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KIA 타이거즈 간판 투수 윤석민과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푸드코리아는 야구 은퇴 후 골프 선수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윤석민의 한국프로골프(KPGA) 2부 투어 대회 참가 및 선수 활동을 지원한다. 윤석민은 KBO리그를 대표하던 투수였다. 2005년 2차 1라운드 6순위로 KIA에 지명, 지난해 은퇴할 때까지 통산 398경기에 등판해 77승75패18홀드 86세이브 평균자책점 3.29의 성적을 남겼다. 특히 2011시즌에는 17승5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2.45로, 다승·평균자책점·탈삼진(178)·승률(0.733) 투수 4관왕까지 차지했다. 태극마크를 달고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이끌었다.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는 준우승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고질적인 어깨부상으로 2019시즌 단 한 번도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고, 결국 은퇴를 선언했다. 그리고 이제는 야구공 대신 골프채를 잡고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연다. 정푸드코리아 정보현 대표는 "야구에서 최고를 달렸던 윤석민 선수의 은퇴 후 골프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도전장을 이어가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정푸드코리아 역시 통조림 제조 전문 기업으로써 국내 최고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선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푸드코리아는 지속적해서 사회약자들을 위한 기부를 통해 사회공헌과 지역농수산물 소비지도를 위한 윤리적 활동을 이어가며 F&B기업으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김희 기자

김하성보다 먼저 지명됐던 박계범, 이번엔 터질까

군복무·잔부상 기대 못 미쳐...오제일 보상선수로 두산행



아직 영글지 않은 만 24세 삼성 라이온즈 내야수 박계범이 두산 베어스에서 선수 인생 2막을 시작한다. 두산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삼성으로 이적한 오제일의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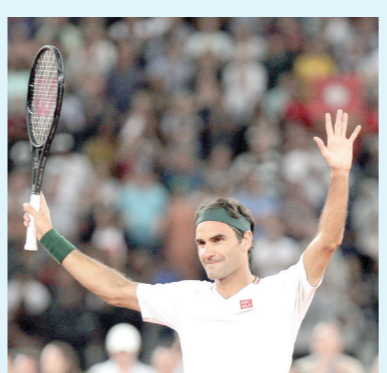
상선수로 박계범을 지명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지난 19일 삼성으로부터 20명의 보상선수 명단을 넘겨받은 두산은 고심 끝에 내야 자원인 박계범을 선택했다. 박계범은 효천고 시절 경기도 심우준(KT)과 유격수 유망주로 각광 받았던 선수다. 2014년 신인드래프트에서는 2차 2라운드 17순위로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메이저리그(MLB) 입성을 앞둔 김하성(키움 3라운드 29순위 지명)보다 빨리 이름이 호명됐을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큰 선수였다. 프로 생활은 녹록치 않았다. 드래프트 동기 김하성, 심우준이 팀에서 입지를 넓혀가던 것과 대조적으로 박계범은 기대처럼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2015년 처음 1군 무대를 밟았지만 3경기 출전에 그쳤고, 2016년도 5경기에 나섰을 뿐이다. 일찌감치 군입대를 택한 박계범은 2019시즌부터 야구팬들에게 서서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해 유격수와 3루수를 오가며 58경기를 소화, 타율 0.256을 찍었다. 하지만 올해는 80경기에서 타율 0.195에 그쳤다. 1군 통산 기록은 146경기 출전 타율 0.226(332타수 75안타). 현실은 냉혹했다. 삼성은 떨어지는 컨택 능력과 잔부상으로 기량을 만개하지 못한 박계범을 보상선수 명단에서 제외했다. 오제일의 보상선수로 선택되면서 박계범은 데뷔 첫 이적경험하게 됐다. 올해 FA 시장에서 최주환(SK)과 오제일을 모두 잃은 두산은 내야 전력 강화에 집중했고, 유망주로 꼽혔던 박계범에게 기대를 걸어보기도 했다. 두산측은 "투수, 야수 포함 모든 선수 중 박계범의 기량이 가장 뛰어나다고 판단했다. 박계범은 내야 전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즉시전력감"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젊은데다 군복무를 해결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기대만큼 성장만 한다면 공백 없이 내야 유틸리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두산은 보상선수 2명과 함께 14억8000만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보상을 챙겼다. 삼성으로부터 9억4000만원, SK로부터 5억4000만원이 두산으로 입금된다. 김민정 기자

페더러, 18년 연속 테니스팬들 가장 좋아하는 선수 1위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39·스위스)가 18년 연속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ATP 투어는 22일(한국시간) 2020시즌 주요 부문 수상자를 발표했다. 팬들의 투표로 뽑는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부문에서는 페더러가 1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ATP는 2000년부터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부문을 시작했다. 2000년 구스타브 키르텐(브라질)이 초대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고, 2001년과 2002년 마라트 사핀(러시

아)이 이 상을 받았다. 2003년부터는 페더러가 매년 수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세계랭킹 5위인 페더러는 올해 1월 호주오픈에서 4강에 진출한 이후 대회에 나서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ATP 투어가 중단된 사이 무릎 수술을 받아 시즌을 접었다. 세계랭킹 1위로 시즌을 마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ATP 넘버원 어워즈는 현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차지가 됐다. 조코비치는 올해 1월 호주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시즌 개막

후 26연승을 달렸다. 또 투어 대회에서 4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33세 6개월 16일에 연말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조코비치는 역대 최고령 연말 세계랭킹 1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작성한 33세 5개월 23일의 기록을 넘어섰다. 조코비치는 개인 통산 6번째 연말 세계랭킹 1위를 달성해 피트 샘프라스(미국)가 보유하고 있던 역대 최다 기록에 타이틀을 이었다. 나달은 3년 연속 스포츠맨십 상을



수상했다. 기량 발전상은 안드레이 루블레프(러시아)에게 돌아갔고, 올해의 재기상은 배식 포스피실(캐나다)의 차지가 됐다.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가 올해의 신인에 선정됐다. 뉴시스